

#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5월 18일 · 제357호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

## Contents

###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APMT, 태평양 항로의 20,000TEU급 선박 투입에 본격 대비
2. 싱가포르항만, TUAS 메가 컨테이너터미널 1단계 개발 착수 발표
3. Hapag-Lloyd, '16년 1분기 순손실 4천280만 유로 기록
4. UPS, 지도기반의 실시간 화물추적 서비스 개시

### | 물류시장동향 |

1. 파나마 운하 확장, 북미 물류산업 대변화 예상
2. 월마트, 전자상거래 고객 위한 무료배송 서비스 개시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APMT, 태평양 항로의 20,000TEU급 선박 투입에 본격 대비

- APMT는 향후 아시아-태평양 항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0TEU급 선박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LA항 Pier 400 터미널의 시설 개선에 착수함
  - Pier 400은 2015년 12월 미국 항만으로서는 처음으로 18,000TEU급(CMA-CGM의 벤자민 프랭클린호) 초대형 선박이 기항한 터미널임
  - 현재 CMA-CGM은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초대형선의 정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APMT는 선제적 대응에 나섬
- APMT는 안벽 크레인 10기에 대해 20,000TEU급 선박을 처리할 수 있도록 ZPMC와 기능 개선 계약을 체결함
  - 2015년 말 CMA-CGM의 벤자민 프랭클린호의 시범 운항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적재 화물은 터미널 상황을 고려하여 15,000TEU급 선박 수준인 7단적으로 낮춤
  - 현재 발주된 20,000TEU급 이상 선박의 적재 높이는 8단적 이상으로 향후 본격적인 기항 시 크레인 높이, 붐(BOOM)의 확장 등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임
- 북미서안 항로에 초대형선 투입 시기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는 있으나, 종합적인 견해는 시장 및 터미널 여건에 따른 시간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현재 북미서안 항로에 투입되고 있는 최대 선형은 12,000~13,000TEU급이며, 2013년에 12,500TEU급 MSC Fabiola가 미서안 항만에 투입된 최초의 초대형선임
  - CMA-CGM은 향후 Explorer class를 투입할 예정으로, 투입 선대의 이름과 같이 향후 북미서안 항로의 초대형선 투입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됨
- 중단기적으로 다양한 항로에 초대형선 투입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초대형선은 아시아-유럽 항로를 중심으로 투입되고 있으나, 발주된 초대형선 인도 증가 및 파나마 운항 확장 등과 연계되어 북미항로에 투입 확대가 예상됨
  - 현재 18,000TEU급 이상 초대형선은 37척이 운항하고 있으나, 18,000~21,000TEU급 72척이 발주된 상황임
- 이에 따라 북미 항로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산항에도 초대형선 투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선석의 초대형선 접안 한계점 등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자료 : www.lloydlist.com, 2016.05.13.

김근섭 부연구위원  
051-797-4662, gskim@kmi.re.kr



## 싱가포르항만, TUAS 메가 컨테이너터미널 1단계 개발 착수 발표

- 2016년 4월 24일, 싱가포르해운항만당국(MPA)은 TUAS 메가 컨테이너터미널 1단계 개발 착수를 공식 발표하는 케이슨 진수식(Launch of the 1<sup>st</sup> Caisson)을 개최했음
  - 1단계 메가 컨테이너터미널 개발을 위해 28m 높이의 세계 최대 규모 케이슨 222개가 안벽공사에 투입될 예정이며, 관련 매립 규모는 294만m<sup>2</sup>에 달함
  - 2015년 2월, MPA는 벨기에 준설(Dredging) 기업인 DIAP사와 우리나라 건설기업인 대림산업(DAELIM)의 조인트벤처(JV)에 약 2조원 규모(24.2억 싱가포르달러)로 동 공사(매립 및 1단계 컨테이너부두 건설) 수행을 승인한 바 있음
- 2020년 완공 예정인 TUAS 메가 컨테이너터미널 1단계는 안벽길이 8.6km, 전면수심 20m로 개발되며, 연간 2,000만 TEU 처리능력을 보유하게 됨
  - 또한 TUAS 메가 컨테이너터미널은 30년에 걸쳐 4단계(그림 참조)로 개발될 예정이며, 전체 개발 완료 시 연간 6,500만 TEU 처리 규모를 확보하게 됨
  - MPA의 CEO인 Mr. Andrew Tan씨는 TUAS 메가 컨테이너터미널은 싱가포르가 제시하는 차세대 항만 비전(Singapore's Next Generation Port Vision)의 핵심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TUAS 컨테이너터미널의 단계별 개발 위치 >

< 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조감도 >

자료 : Phase 1 of TUAS Terminal Development Begin (The Maritime Executive, 2015.5.3.) ; Phase 1 of TUAS Terminal Development Begins (Channel NewsAsia, 2016.4.30.).

- 우리나라 정부가 부산항을 세계 2대 환적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TUAS 메가 컨테이너터미널의 개발 전략 및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항만은 충분한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도심 터미널을 TUAS 신항으로 이전해 세계 최고 기술이 집약된 환적 컨테이너 허브항만을 구축함은 물론, 현재의 터미널 부지는 미래 세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환하고 있는 것임

자료 : MPA, "Phase 1 of TUAS Terminal Development Begins" (2016.4.29.)

김은수 전문연구원  
051-797-4651, kes1213@kmi.re.kr



## Hapag-Lloyd, '16년 1분기 순손실 4천280만 유로 기록

- 하팍로이드는 '15년 1분기에 1억 2,800만 유로의 수익을 달성했으나, 급격한 운임 하락의 영향으로 '16년 1분기에는 4천 280만 유로의 순손실(net loss)을 기록함
  - 하팍로이드의 '16년 1분기 화물 처리량은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한 180만 TEU를 기록한 반면, 매출은 19억 3천만 유로를 기록, '15년 1분기 23억 유로 대비 감소함
  - '16년 1분기 평균 운임은 전년 동기대비 20% 하락한 TEU 당 1,067 달러 수준임
  - '16년 1분기 EBITDA는 1억2,340만 유로를 기록, '15년 1분기 2억8,360만 유로 대비 감소함
  - '16년 1분기 EBIT 480만 유로를 기록, '15년 1분기 1억 7,430만 유로 대비 감소함
- 하팍로이드는 비용절감 및 효율성 확보 전략인 OCTAVE 프로그램을 활용, 운임 하락 등과 같은 시장 침체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시켰다고 밝힘
  - 하팍로이드는 공격적인 비용절감 전략을 통해 운항비용을 TEU 당 198 달러 감소시켰음
  - 하지만 비용절감의 주요인은 전년대비 하락한 유가로 인한 비용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 '15년 1분기 평균 벙커 유가가 1톤 당 378 달러를 기록했으나, '16년 1분기 평균 벙커 유가는 178 달러까지 하락함
- 하팍로이드는 CSAV와의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OCTAVE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6억 달러의 장기적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
  - OCTAVE는 하팍로이드에서 2015년부터 시행된 비용 절감 프로그램의 일환임
- 또한 하팍로이드는 올해 남미의 연안해송(카보타지) 틈새시장에 3,500 TEU 선박 2척을 배치시키는 등 매출 증강을 위한 다양한 운영 전략을 시행했다고 밝힘
- 한편 하팍로이드는 MOL, K-line, NYK, 양밍, 한진해운과 함께 제3의 해운동맹 "THE 얼라이언스" 를 결성함
  - THE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선사들은 상호 기본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하고 2017년 4월 1일부터 아시아-유럽, 아시아-북미서안, 아시아-북미동안, 아시아-중동 등 동서항로에서 공동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계약 기간은 5년임
- 이번 동맹으로 THE 얼라이언스는 620척 이상의 선박을 확보했으며 선복량 규모는 약 350만 TEU로 전세계 컨테이너 선복량의 18%에 달함
  - 또한 하팍로이드가 추진하고 있는 UASC와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선복량 규모는 400만 TEU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아시아-유럽 항로에서는 2M 34%, Ocean 얼라이언스 26%에 이어 THE 얼라이언스가 22%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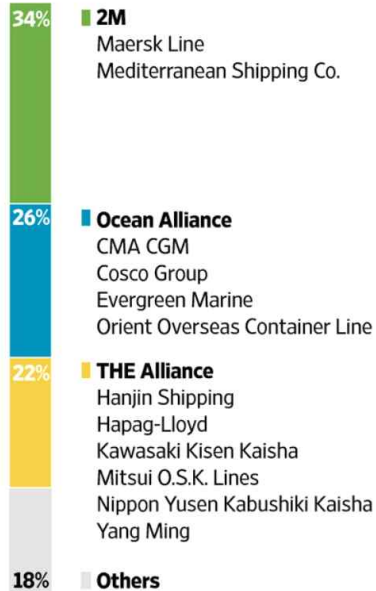
## 아시아-유럽 항로 시장 점유율

### Tying Up

Friday's new alliance splits global container-ship operators into three main partnerships.

**Market share in terms of capacity in Asia-Europe trade route.**

Sources: Hapag-Lloyd (THE Alliance market share); Maersk (market share of all others)  
THE WALL STREET JOURNAL.



자료 : [www.wsj.com](http://www.wsj.com)

자료 : [www.americanshipper.com](http://www.americanshipper.com), 2016.5.13. / [www.worldcargonews.com](http://www.worldcargonews.com), 2016.5.13. / [www.wsj.com](http://www.wsj.com), 2016.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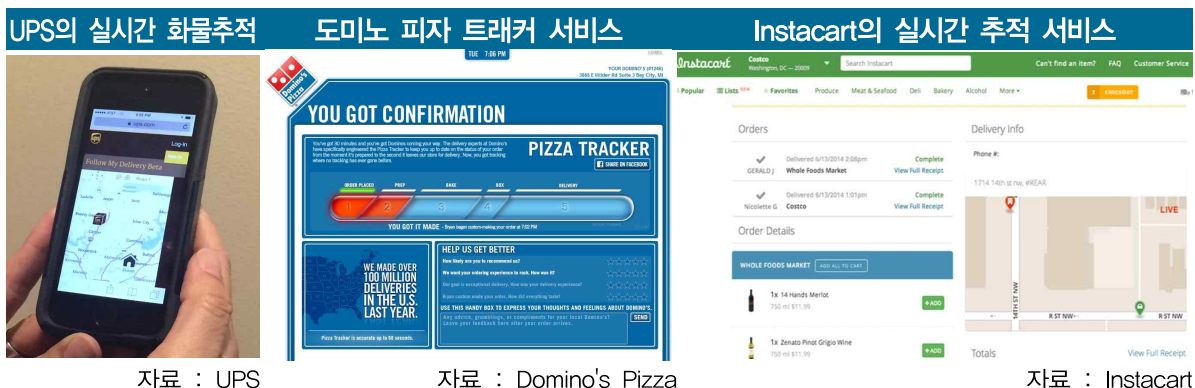
박성화 연구원  
051-797-4614, [shpark83@kmi.re.kr](mailto:shpark83@kmi.re.kr)





## UPS, 지도기반의 실시간 화물추적 서비스 개시

- UPS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지도에서 실시간 화물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인 Follow My Delivery를 선보였음
  - Follow My Delivery는 이용자들이 운송 경로 상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화물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진보된 서비스는 미국의 주요 특송업체 중에서 UPS가 첫번째임
  - 실시간 화물 추적서비스는 무료 가입이 가능한 UPS My Choice의 이용자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배송 알림, 예상 배송 시간, 온라인 배송 서명 등 기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Follow My Delivery는 UPS Air와 UPS Worldwide Express와 같은 비교적 고가의 서비스만 대상임
  - 본 서비스는 화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달원의 위치를 기준으로 2-3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종 도착까지의 시간과 경로 등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배달원이 수취인의 집을 갑자기 방문하여 급하게 나가거나 혹은 수취인이 자리를 비워서 배달을 못하는 경우 등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음
  - 또한 My Choice 서비스에서는 이송 중인 화물의 배송지 변경을 통해 직장이나 이웃집 혹은 접근처의 UPS 취급점(UPS Access Point) 등으로도 대신 보낼 수 있음
- UPS의 서비스는 도미노 피자 배달추적 서비스인 Tracker, 식료품 회사인 Instacart의 실시간 위치추적, 우버(Uber)의 실시간 차량 위치확인 서비스와 유사함
  - 현재 UPS의 위치추적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단위에서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웹브라우저 기반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IOS나 안드로이드의 UPS MY Choice에서는 화물도착 알림을 받지 못하고 문자 메시지로만 도착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등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될 여지가 있음
  - UPS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임



자료 : www.time.com, 2016.5.12.

이홍원 연구원  
051-797-4783, hongwon@kmi.re.kr



## 물류시장동향

### 파나마 운하 확장, 북미 물류산업 대변화 예상

- 파나마 운하 확장 개장 이후, 아시아-북미 동안 해상 운송 비용 감축에 따라 북미 물류 산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북미 동안 해상운임이 절감될 경우, 기존 북미 서안 항만 및 철송 물량 감소가 불가피함
- 멕시코만 인근 루이빌, 멤피스, 테네시 지역 물류 지도의 변화가 예상되며, 항만 확장에 약 \$46억을 투자한 LA/LB항도 물동량 감소가 예상됨
  - 다만, 북미 동안 항만은 수용능력 개선 공사 중으로 단기간 내 물류산업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인해 기존 파나마스급 선대의 계선 및 폐선이 증가했으며, 용선료 또한 감소했음

자료 : Hellenic Shipping News, 2016.5.10.

김주혜 연구원  
051-797-4779, joohye915@kmi.re.kr

### 월마트, 전자상거래 고객 위한 무료배송 서비스 개시

- 글로벌 유통업체 월마트는 미국에서 무료배송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힘
  - 월마트는 본 신규 무료배송 서비스인 쉬핑패스(ShippingPass)를 통해 고객에게 무료로 이틀 안에 물품을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새로이 구축하여 본 신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임
  - 월스트리트저널은 본 월마트의 무료배송 서비스는 향후 미국 전역 물류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봄
  -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존 월마트의 물품을 페덱스(FedEx)사가 3PL형식으로 배송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 무료배송서비스는 월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내의 8개 대형 유통센터(Distribution Center)를 통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과의 경쟁을 의식한 행보라고 밝힘

자료 : www.wsj.com, 2016.5.12.

고재성 연구원  
051-797-4776, jsko@kmi.re.kr